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thmschae@yahoo.com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standrewoak@gmail.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한국학교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토요일 오전 9:40-12:50			



바람결에 당신의 목소리가 있고
 세상 만물은 당신의 숨결로 생명을 얻습니다.
 나는 당신의 많은 자식들 가운데
 작고 힘 없는 아이입니다.
 내게 당신의 힘과 지혜를 주소서.

세월호 4.16 특별법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 1독서] 1열왕 3,5-6-7,7-12
 [화답송] 시편 119(118),57과 72,76-77,127-128,129-130(◎ 97- 참조)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주님 - 제가 당신 - 가르침을 사랑하 - 나 이 다

- 주님은 저의 몫이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웁니다. ◎
-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옵니다. ◎
-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
-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을 깨우치나이다. ◎

[제 2독서] 로마 8,28-30
 [복음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음] 마태 13,44-52<또는 13,44-46>

성가	8시 미사	입당 444	봉헌 510 513	성체 177 159	파견 6
	11시 미사	입당 444	봉헌 510 513	성체 177 159	파견 6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17주일(7월 27일)		연중 제18주일(8월 3일)		연중 제19주일(8월 10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임루카(승원)	전베로니카(진영)	정스텔라(애리)	권미카엘(창모)	김안토니오(휘)	이엘리사벳(자영)
제 1 독서	최베네딕토(환준)	최다니엘(대연)	정프란치스코(일환)	허라우렌시오(순구)	이바로로(명국)	심미카엘(태규)
제 2 독서	최베네딕다(수영)	김테레사(승희)	정글라라(영희)	이골롬바(정연)	정스텔라(애리)	심헬레나(승화)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말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위해서는 나쁜 것들은 비워내고, 좋은 것들로 채워가는 열정적인 쇄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무엇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속담에 “생각을 잘하는 것은 현명하고, 계획을 잘하는 것은 더 현명하고, 실행을 잘하는 것은 가장 현명하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은 보물 상자지만, 실천은 보물 상자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참된 지혜)을 듣고, 보고, 알고, 실천해서 정화되고 성화 되어 갑니다. 보물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잘 사용하셔서 복된 나날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참된 지혜를 청합니다.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네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네 말대로 해 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열왕기상권 3, 11-12)

김혁태 사도요한 신부
간석2동 본당 주임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계획에 순명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주님과 이웃을 향한 열린 마음을 의미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느님께서 드러내신 법질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주신 양심입니다. 하느님 법은 하느님의 말씀(성경)을 뜻하며, 하느님 말씀은 곧 예수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지혜에 대한 순명은 여러 가지 긍정의 효과(기쁨, 보람)를 가져다주고, 솔로몬이 위대한 이유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겸손의 덕을 지니고, 자기만의 이익을 탐하기보다는 백성의 유익을 추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축복도 아울러 얻게 됩니다.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IQ(지적지수), EQ(감성지수), SQ(영적지수), 그리고 JQ라는 말이 있습니다. JQ는 잔머리 지수라고 합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는 자신의 JQ(잔꾀)에서 벗어나서 SQ로, 오늘 복음에서 나오듯이 늘 성경 말씀(보물)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은 보물을 찾아내는 보물지도입니다. 하늘나라 보물은 솔로몬이 청한 참된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 모든 것을 선으로 귀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보물을 얻기

생명의 말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전 같으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던 일들이, 요즘엔 칭찬받을 만한 ‘대단한 일’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정직하게 교통 신호를 지키거나, 남에게 피해가 갈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온 당연한 일인데도, 이런 당연한 일이 요즘에는 흔히 볼 수 없는 미담이나 특별한 선행처럼 생각됩니다.

반면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나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세태를 두고 어떤 분은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진위(眞僞)가 뒤집어진 세상”이라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삶이란 것은 부단히, 또 과감히 ‘버리는 일’과 끝까지 든든히 ‘붙잡는 일’을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일일 텐데, 우리는 버려야 할 걸 붙잡고 변치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은 쉽게 내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참된 삶이 아닌 ‘껌데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잡다한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값진 진주, 즉 ‘제대로 된 하나’를 붙잡은 사람은 모든 것을 이미 얻은 사람일 텐데, 우리는 그 ‘소중한 것’을 놓치고, 대신 쓸데없이 잡다한 걸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정작 중요한 하나는 무엇일까요. 유혹이란 게 있습니다. 모든 게 풍족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건이 좋지 않고 힘들 때일수록 ‘옳지 않은 일’도 ‘정당한 일’로 느껴지면서 쉽게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종교인으로, 혹은 누구보다 바른길을 보여줘야 하는 교회는 지금 당장 모든 게

절박하고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이나 조급함 때문에 쉬운 길을 택하고, 양심을 거스르는 일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신앙인으로서, 또 교회로서의 ‘마지막 카드’를 잃는 것입니다.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열악하고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중요한 마지막 하나’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인간의 양심’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순교자 124위 시복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설사 세상은 쉬운 길을 가라고 손짓할지라도, 당신이 그래봤자 누가 알아주겠느냐고 하더라도, 손해만 보고 결국 죽음뿐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마지막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것이 순교인 것입니다. 순교는 과거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또 목숨을 내놓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순교입니다.

이 시대에 정작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명찬 신부
오금동 성요셉성당 주임

말씀의 향기

하느님과 함께 걷는 길

저의 짧은 신앙생활을 돌아보니 ‘하느님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여행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북한산의 호젓하고 아름다운 오솔길을 걸으며 하느님이 주신 자연의 혜택을 만끽하다가도, 어느새 진달래 능선처럼 가파른 오르막이나 아슬아슬한 절벽을 진땀 흘리며 기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희망과 설렘으로 형제자매들과 ‘나눔’의 기쁨을 맛보는 맑은 날도 있었지만, 좌절과 쓰라림으로 기억되는 잿빛의 흐린 날도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은혜로 충만해서 하느님과 이웃들 앞에 의기양양했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날도 많았습니다. 절실하고 은혜로운 하느님 체험을 하고 나서 소년처럼 가슴이 뛰던 때도 있었지만, “도대체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을 그냥 두고만 보신단 말인가?” 하며 원망하고 막막해하던 젊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기뻐던 날보다 신앙의 여정 안에서 참으로 피하고 싶었던 고통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잃고 순식간에 가세가 기울어졌던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 전체가 뒤흔들렸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불행의 기억은 너무도 고통스러웠기에 떠올리기조차 싫습니다.

20년 전,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고관절을 다쳐서 무려 7시간에 걸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 10년간이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남몰래 고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해보면 병고에 시달리던 그때야말로 하느님의 진한 은총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느님께서 인간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시며, 함께 눈물 흘리시는 연민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그 시기에 뱃속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때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괴로

웠지만 그 고통의 순간들은 제 내면을 솔직하게 응시할 수 있게 해주었고, 저의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차차 제 머릿속에는 ‘좌절의 순간이야말로 은총이구나!’ 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좌절했던 바로 그 순간들이야말로 제 삶 안에 큰 전환점이 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거듭되는 실패 속에 해탈 때도 우리가 결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느님을 굳게 믿는다면,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믿어주고 신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분만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결코 고통 속에서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고통 안에 계심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김병각 베드로
경향신문 부장
전 서울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 회장

성경산책(구약)

스바니야서, 하카이사

스바니야 예언자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지러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대제국 아시리아가 쇠락하자 신바빌론과 이집트가 패권을 잡으려 달려들었고, 이런 혼란기를 틈타 여러 민족들이 저마다 꺾기하고 군소국가들의 이합집산이 횡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아시리아라는 외세에 기대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악한 임금 므나세가 몰락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나라 백성’의 힘을 입은 요시야가 임금에 올라 남유다를 강력히 개혁합니다.(2열왕 21,24-23,27) 하지만 결국 요시야는 므기또에서 전사하여, 안타깝게도 그의 훌륭한 개혁은 끝이 나고(2열왕 23,28-30) 유다인은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요시야 시대를 살았던 스바니야는(스바 1,1) 임금의 개혁을 적극 지지했지만, 결국 바빌론 유배를 지켜봐야 했던 비극적 운명의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날’을 노래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모든 것의 운명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날이 역사적 범위를 넘어 우주적 대이변의 날이며, 총체적 전복과 회복의 날이며,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날임을 선포합니다.(스바 1,2-3.14-18) 그리고 그는 주님의 날에 “남은 자들”(스바 2,7.9; 3,13)이 있어 유산을 차지하고 평화를 이루며 불의와 거짓을 행하지 않으리라는 낙관적 미래를 선포합니다.

스바니야 예언자가 전하는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스바니야 예언자가 전하는 희망과 기쁨의 말씀을(스바 3,17) 읽으시고, “제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하고 공감하는 기쁜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내셨습니다.(「복음의 기쁨」 4항)

하카이는 단 두 장의(총 38절) 짧은 책입니다. 하카이는 스바니야보다 훨씬 후대의 인물입니다. 신바빌론 제

국을 꺾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가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시대입니다.(하카 1,1.15) 유배를 견딘 백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희망에 들떴고 성전을 다시 지으려 하였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귀환하여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백성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주변 민족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임금이 된 다리우스의 집권 초반기는 불안정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에는 흉작이 닥쳤습니다.(하카 2,16-19)

하카이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시대의 표징을 해석해 줍니다. 빈곤과 흉작은 그들의 영성적 혼란에 대한 주님의 벌이기에, 이제 신앙의 열성을 되찾고 주님의 집을 재건하면 결국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리라는 뜻입니다. 하카이는 백성에게 용기를 되찾으라고 격려합니다.(하카 2,4-5) 그리고 하카이는 새로운 주님의 집과 그 집에 합당한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전합니다. 이렇게 그는 구원의 새 시대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영감은 신약성경에서 성취됩니다.

주원준 박사
한님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외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7월27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대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이마리아(명자)	이요셉(건용)
	연	이마리아(명자)	송수산나
	연	김중화	정대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대레사(혜경)
	연	계영실	이카타리나(영보)
	생	신마태오(현규)	송수산나
	생	신마태오(현규)	최카타리나(옥경)
7월29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이마리아(명자)	이요셉(건용)
7월31일 목	생	허로렌조 가정	강요한(신호)
8월 1일 금	생	황안나(정희)	익명
8월 2일 토	연	박피데스(신덕)	박헬레나
	연	김도마	김카타리나
	연	이요한	김카타리나
	연	정다니엘	김카타리나
	생	레지오 활성화	꾸리아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0	187	-	267
헌 금	\$502	\$984	-	\$1,486

< 교무금 > \$3,065

권영현(7-8) 양인심(7-8) 정경희(7) 서춘애(7)
 최옥경(4-7) 정일양(7) 윤성진(4-5) 원광희(5-8)
 최순일(7) 최몽렬(6-7) 황현숙(7-8) 이진열(7-8)
 박종영(7-9) 김정탁(4-7) 김명환(4-6) 최윤기(6)
 김수연(7)

< 성소후원금 > \$120

서춘애(7-8) 최윤기(6)

< Bishop's Appeal >

최윤기(6)

< 감사헌금 >

익명 \$500

~~~~ 오늘 간식은 이건용 요셉/비비안나 가정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 오늘 미사는 본당을 방문 중이신 박영근 사도요한 신부님께서 함께 집전해 주십니다.
- ◆ 성모신심미사 : 8월 2일(토), 꾸리아 월례회
- ◆ 병자 봉성체 : 8월 1일(금)
- ◆ 지속적인 성체조배  
8월 1일(금) 저녁 9시 ~ 8월 2일(토) 아침 7시
- ◆ 본당의 강효원 그레이스와 정송이 비비안나 학생이 FIAT 재단에서 실시한 장학금/봉사인정 프로그램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시상식 8월 17일 교중미사 중)
-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대건산악회 : 매주 화요일/문의 : 510-847-3014
  - \* 구역장회의 : 7월 27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사목회의 : 8월 3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사진동호회 모임  
일시 : 7월 27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주제 : 인터넷에 사진 올리기  
\* 동호회 회원 아닌 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 대건장학회 신청 접수(친교실)  
신청일시 : 6월 8일 ~ 7월 27일  
장학금 수여식 : 8월 17일  
문의 : 허석진 프란치스코 510-406-0588  
oakcc.scholarship@gmail.com
- ◆ 주일학교 여름 캠프
  - High School Camp : July 27 ~ July 30
  - Junior High Camp : July 30 ~ August 1
  - 문의 : campdirectors@gmail.com

| 7월 구역모임 |             | 고린도전서 9-10장 |
|---------|-------------|-------------|
| 1 구역    | 7월27일(일) 6시 | 최재준 토마스 맥   |
| 2 구역    | 7월27일(일) 6시 | 김종성 바오로 맥   |

- ◆ 제 20 차 북가주 성령대회  
일시 : 8월 9일(토) 오전 8:30 - 오후 6:00  
주제 :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강사 : 차동엽 로베르도 신부님  
장소 : 새크라멘토 정혜 엘리사벳 한인 천주교회  
참가비 : \$25(Pay to the order of KSCNC)  
\*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은 성당에 아침 6시 50분까지 도착하셔야 합니다.(버스 출발 7시)

- ◆ 향심기도 피정  
일정 : 8월 15일(금) 저녁 7시 - 8월 17일(일)  
장소 : Danville San Damiano 피정 센터  
지도 : 이승구 신부님(서울교구 향심기도 사목담당)  
비용 : 2인 1실(\$230), 1인 1실(\$280)  
문의 및 신청 : 김명환 안드레아 925-262-7094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 마르타(7/29) : -
- \* 이냐시오(7/31) : 유제청, 김정호

| <b>안국학교 소식</b>                              |
|---------------------------------------------|
| - 한국학교 교사 모집<br>문의 : 정인경 가브리엘라 415-517-3544 |
| - 개강 : 9월 6일                                |
| - 등록비 : \$300/1년(교재, 행사참가비 포함)              |